한국농어촌의 전업화,
대규모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반면 자본력이 미약하고 규모가 영세한 양계
인들은 잇단작업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미치한 보장받을 수 있는
돌파구로 집단농장이나 협업농
장 형태를 선호하여 점차 제 자리
를 굳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이란 일련의 육
작업에 비해 황진 오래전인 20여
년전부터 강원도 원주지역은 양계
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양계업에
중심에 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경제권이 수도권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찌면 이런 현상은 당연
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양계농가의 집합체
원주지역은 170여명의 양계농가
가 220만원 규모를 사유하고 있는
데 20여년 전부터 대규모 축산업
지가 조창되어 우리나라 양계산업
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되었고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한다.

청천농원과 대명농원에 축산조
합이 각각 2개, 그리고 신규업체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
시 근처의 원농조합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주산란분회는 운영
된다.
88년 원주계우회를 출발하여 운영되어 오다 89년에 원주산란분회라는 명칭으로 본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길지 않은 기간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최대한의 이익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했던 것이 바로 회장인 원주광건의 사료공동구매사업과 계란 공동판매사업이다.

사료공동구매와 계란공동판매 사업 전개

이는 지역적으로 대규모 집단농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경년농원은 이에 오래 전부터 일부 회원들끼리 사료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고계란공동판매를 통한 재값발기에 특별히 눈을 쏟은 사실이다.

원주지역에서는 계란판매에 있어서도 소규모 양산과는 신속도를 우선으로 하지만 재법 큰 대규모 양수란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경우 답보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물이익에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몇몇 농장에서는 실제로 고사가격에서 2원 이상을 낼 반지면 원주에서 2원을 다운시켜 받으며 생산량의 과잉으로 물량이 흐름될 경우 상인과 생산자의 합의에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육계 군란을 시작으로 출발

원주지역이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양계단지로 발전하기까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68년부터 근처 군부대에 300~500수의 육계를 군납한 것이 시작되어 점차 계란판매품으로 그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 당시에 해도 양계장 하나만 있으면 밥과 살기에 낙났다고 자녀교육비에도 경제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가능한 점 등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수입면에서 제법 우위에 속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점차 양계산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났던 것이다.

그동안의 경기효과 갱파가 대우를 끌어냥 육계물량을 극복하지 못한 농가가 전역 내지 패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원주지역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축산조합을 중심으로 상호협조하여 육계물량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종사회 운 동이가 대부분인 점도 특이할 만하다.

결집된 조직의 보이지 않는 원동력

이런 조직적은 수입개발 반대를 위한 각종 대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자'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로 표출시키기기도 했다.

김재철 분회장은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은 주의를 다하고 있는 농업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업의 반면 힘을 쌓는 자와 없는 자간의 파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원주산란분회는 회원들끼리 서로 믿고 도와주는 자세로 오랜 기간을 갔다 보면 머물어야 왔기 때문
원주지역은 20여년 전부터 집단으로 양계업을 경영한 것으로 국내 양계산업 발전의 대립돌이 되었다.

주소 : 원주시 단구동 1275-145
전화 : (0371) 42-1293

<table>
<thead>
<tr>
<th>직위</th>
<th>성명</th>
<th>주소</th>
<th>전화번호</th>
</tr>
</thead>
<tbody>
<tr>
<td>회장</td>
<td>김재철</td>
<td>원주시 명동동 세경아파트 5동 404호</td>
<td>43-1421</td>
</tr>
<tr>
<td>부회장</td>
<td>이인수</td>
<td>원주시 개운동 산 3</td>
<td>44-4645</td>
</tr>
<tr>
<td>총무</td>
<td>권덕기</td>
<td>원성군 관부면 서북 5리 406</td>
<td>43-2526</td>
</tr>
<tr>
<td>회원</td>
<td>장도성</td>
<td>원성군 관부면 서곡리 406</td>
<td>42-0925</td>
</tr>
<tr>
<td></td>
<td>김상봉</td>
<td>원성군 관부면 서곡리 406</td>
<td>42-0864</td>
</tr>
<tr>
<td></td>
<td>김현수</td>
<td>원주시 단구동 1275-97</td>
<td>44-0863</td>
</tr>
<tr>
<td></td>
<td>최인식</td>
<td>원성군 관부면 서곡리 406</td>
<td>43-3020</td>
</tr>
<tr>
<td></td>
<td>천종용</td>
<td>원주시 개운동 산 3</td>
<td>43-2033</td>
</tr>
<tr>
<td></td>
<td>육지영</td>
<td>원성군 관부면 서곡리 406</td>
<td>46-9400</td>
</tr>
<tr>
<td></td>
<td>김명찬</td>
<td>원성군 관부면 서곡리 406</td>
<td>42-0864</td>
</tr>
<tr>
<td></td>
<td>최광준</td>
<td>원주시 마실동 3동 1번</td>
<td>47-4896</td>
</tr>
<tr>
<td></td>
<td>홍성식</td>
<td>원성군 호지면 만중 3리</td>
<td>42-9547</td>
</tr>
<tr>
<td></td>
<td>이환희</td>
<td>원주시 마실동 2동 1번</td>
<td>43-9815</td>
</tr>
<tr>
<td></td>
<td>김봉석</td>
<td>원주시 개운동 384-24</td>
<td>42-4035</td>
</tr>
<tr>
<td></td>
<td>정제규</td>
<td>원주시 개운동 산 3</td>
<td>42-9060</td>
</tr>
<tr>
<td></td>
<td>박강철</td>
<td>원주시 개운동 산 3</td>
<td>42-9060</td>
</tr>
<tr>
<td></td>
<td>박준철</td>
<td>원주시 개운동 산 3</td>
<td>43-2034</td>
</tr>
<tr>
<td></td>
<td>김철기</td>
<td>원성군 소초면 정당 1리</td>
<td>42-8649</td>
</tr>
<tr>
<td></td>
<td>김복수</td>
<td>원성군 소초면 정당 1리</td>
<td>46-9398</td>
</tr>
</tbody>
</table>

에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요즘처럼 심각한 인력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농가의 사육규모가 대부분 1-2만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기계화, 자동화가 바람직한 것임을 알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본력이 미약하고 규모가 경제하기 때문에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이 위 침수임계미는 건 축산경기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 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인수 부회장은 고충을 던지며 논한다.

양계산업의 골치거리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계분처리는 그 동안은 대란의 정리가 될 수 없었지만, 회계처리상태가 보급, 판매에 해 놓고 수익원한 한 부분을 차지 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민농원에서 계분처리공장의 야외사비표공장이 거의 완공되었는데 앞으로 원주지역의 계분은 거의 처리가 가능한 규모라고 한다.

치악산의 끝없는 꼭대기 중간지 갈대 등의 지역에 비해 뉴 캐슬병 발생이 거의 없는 원주지역은 끝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찬성하고 있다. 법안